



극단 하늘개인날 제5회 정기공연

동의보감

극단 하늘개인날 제5회 정기공연

동의보감

“ 극단 **하늘개인날**
도서출판 **하늘개인날** 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모여
火田을 일구는 곳입니다.
소중하고 성실하게
다루어야 할
火田,
그것은
바로 연극문화와 출판문화입니다.
귀중한 관객들과 독자들을 위해
정중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늘개인날
식구들의 박꽃같은
참 소망입니다. ”

하늘개인날을 빛낸 사람들

- 정단원
이정허 · 권 철 · 김인덕 · 박상기 · 배성우
박현숙
- 워크숍 1기
강운재 · 윤희정 · 최가람 · 배갑례
- 워크숍 2기
김태호 · 천봉철 · 김정희 · 감수련 · 김정아
최영주 · 신청주 · 김미영
- 기획/ 백경미
- 원작/ 이은성
- 각색/ 이정허
- 연출/ 손기룡
- 음악/ 박철홍

차기공연문의 254-2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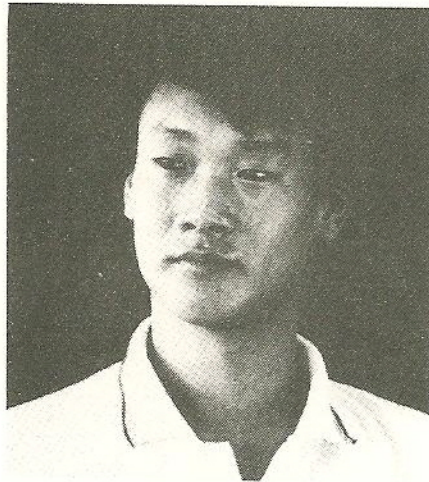
'92. 6.26 **금** ▶ 30 **화**
오후 5:00, 7:30 <1일 2회공연>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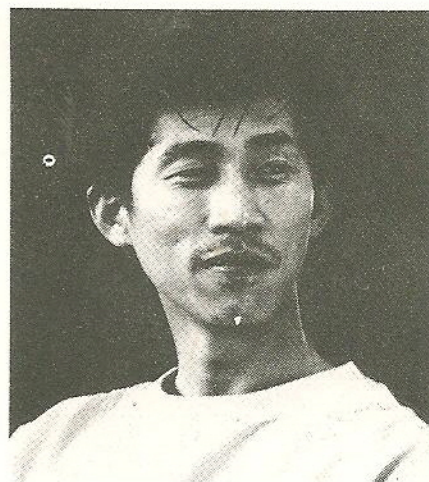
후원 · **釜山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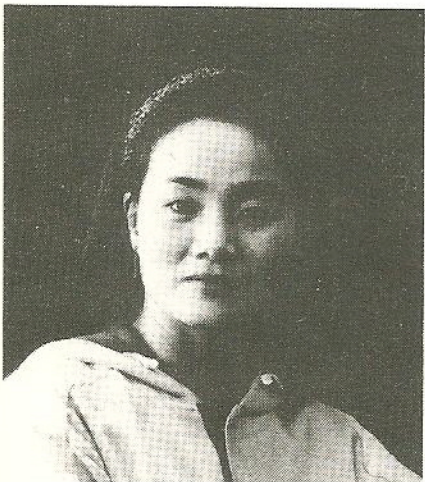
■ 안광익
박상규



■ 영달
전민수



■ 삼적대사
김종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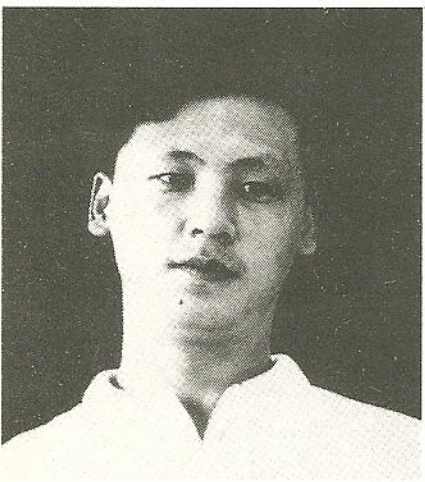
■ 손씨
김혜정



■ 상화
배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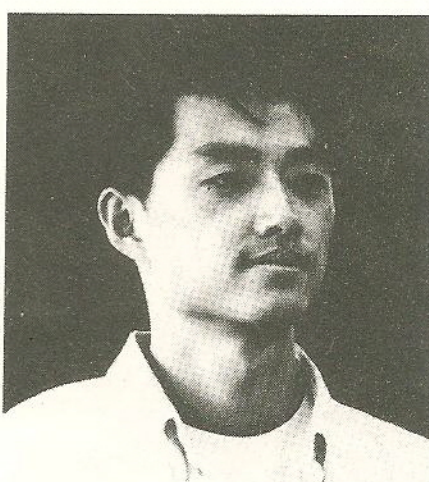
■ 오씨
홍숙자



■ 선비
장하근



■ 꺾쇠
손민



■ 도지
정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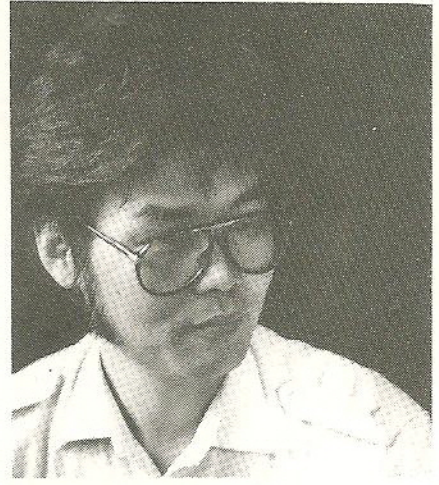




■ 기획
신용우



■ 무대감독
권오진



■ 음악
박철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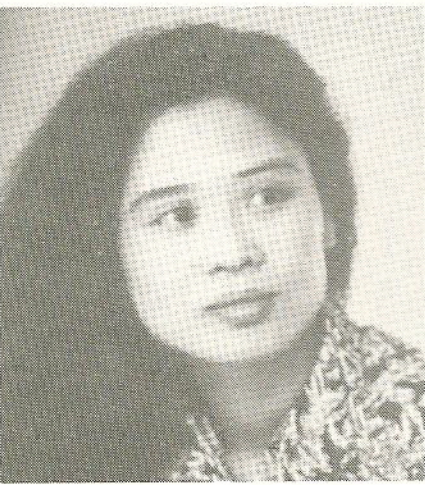
■ 무대미술
손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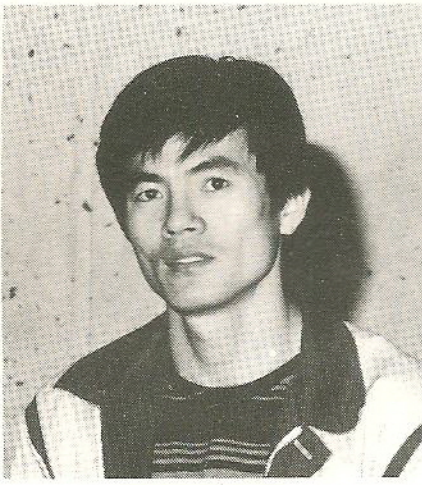
■ 분장
이지원



■ 의상
조영선



■ 사진촬영
김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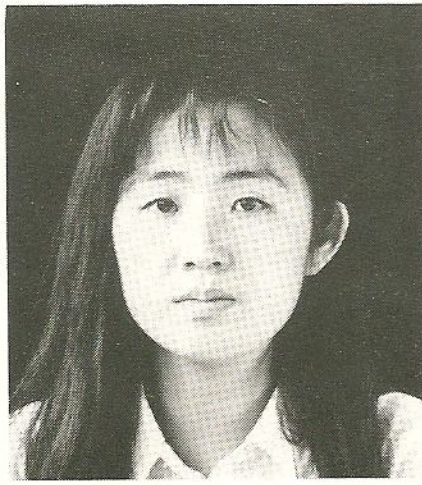
■ 장치
김인덕



■ 조명
박지희



■ 음향
이승현



■ 소품
최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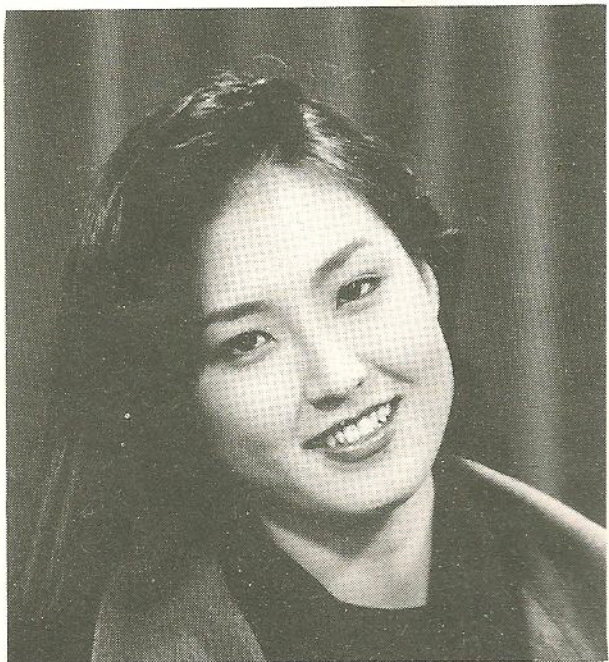
■ 소품
배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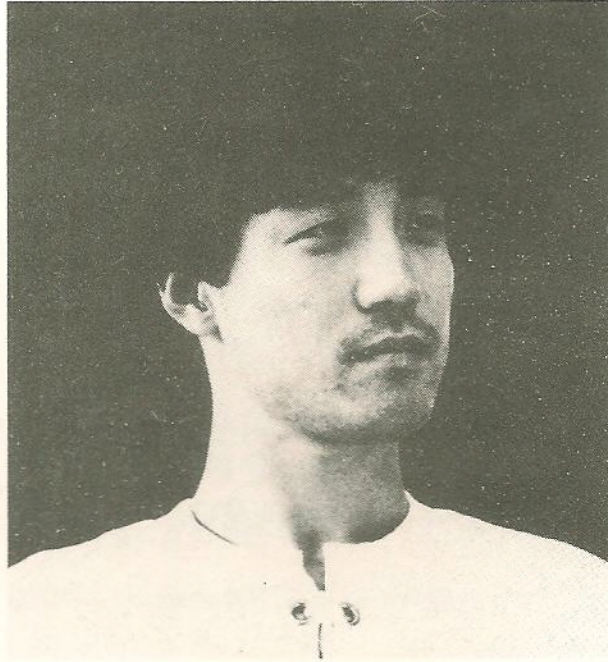
■
유의태
이정허



■
허준
권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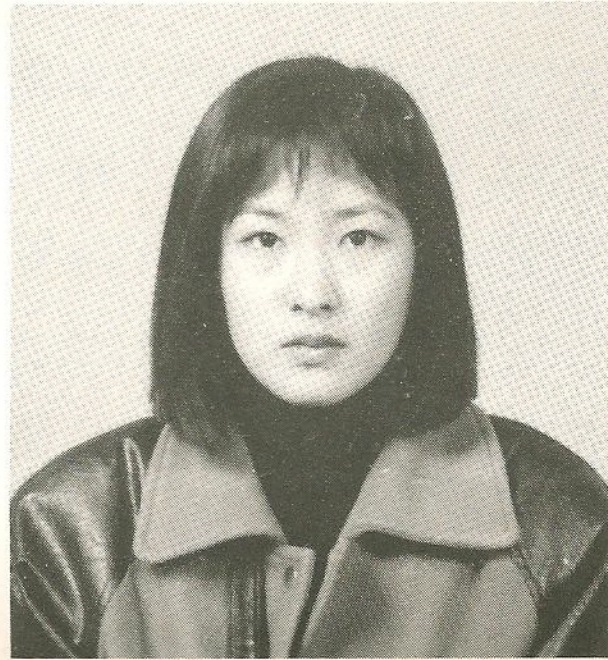
■
다희
박상기




■
성대감
배성우



■
성대감부인
박현숙



■
성대감 딸
김정미

 극단 하늘개인날 제7회 정기공연 및
제11회 부산연극제 대상 축하공연

동의보감

극단 **하늘개인날**
도서출판 **하늘개인날** 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모여
火田을 일구는 곳입니다.
소중하고 성실하게
다루어야 할
火田,
그것은
바로 연극문화와 출판문화입니다.
귀중한 관객들과 독자들을 위해
정중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늘개인날
식구들의 박꽃같은
참 소망입니다. ”

'93. 8.22 日 ▶ 23 月

오후 4 : 30, 7 : 30 (1일 2회공연)

문화회관 중강당

극단 **하늘개인날** 제7회 정기공연 및
제11회 부산연극제 대상 축하공연

동의보감

하늘개인날 가족들

● 고문/박기찬

유원상(청룡건설 대표)

조현부(부산여자전문대학 교수)

주언태(자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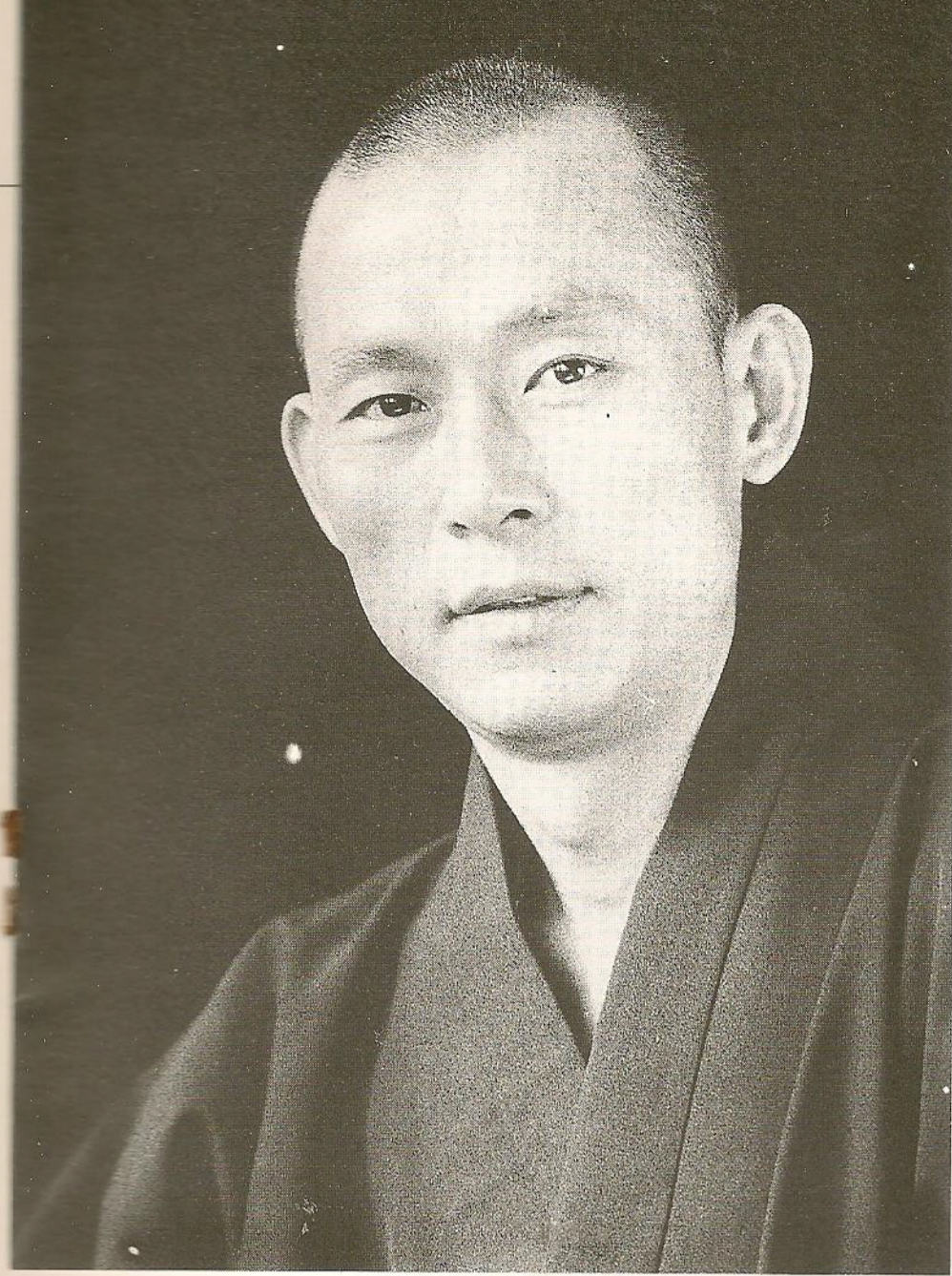
● 대표/권 철

이정허 · 최성락 · 홍성현 · 김승운

강정임 · 신정연 · 김기양 · 김미영

성낙경 · 김인덕 · 구자현

● 후원 / 부산직할시 · 한국연극협회부산지회 · KBS · MBC
부산일보 · 국제신문 · 부산매일신문 · 청룡건설



유의태/이정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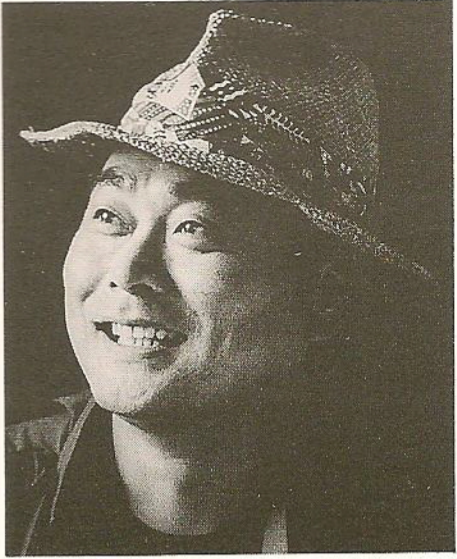
“영혼의 작은 씨앗을 땅위에 남기기 위해서는 처절한 생의 경작을 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내일의 역사를 기약하는 삶의 자학이요, 인고요, 자기 몸뚱이를 버리고 살아가는 이완동물의 생의 질서이다. 때문에 때로는 허황한 삶을 만들어 전통과 계율의 공간에서 빠져 나와 大海에서 자유롭게 유영해 다니는 한마리 고기처럼 자기 삶을 거침없이 살 필요가 있다.”

허준/권철

“사랑이 없으면 자유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자유란 전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내적인 의존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따라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자유를 얻게 되고 오직 그들만이 새로운 세계를 초월할 능력이 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살지 않는 것. 인생이란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없는 것인데 인위적인 서열로서 분할하고 전개하고 매듭짓는 인생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생의 식탁에 한꺼번에 차려놓아진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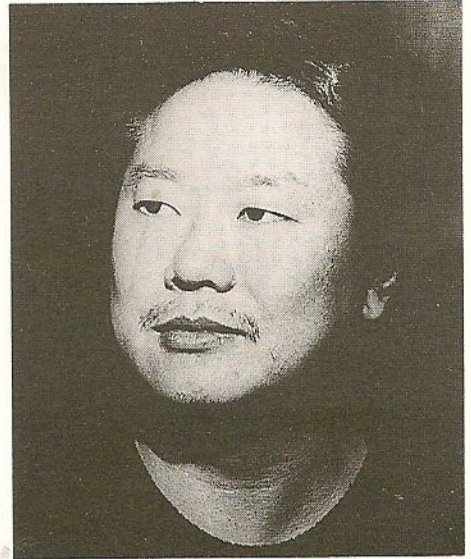
하늘 개인날을 빛낸 사람들/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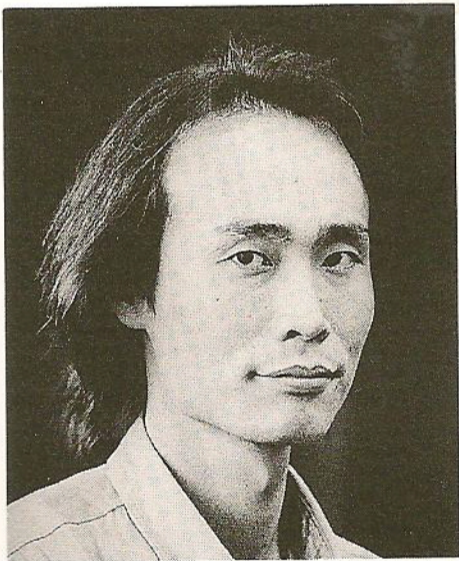
성대감 · 환자/박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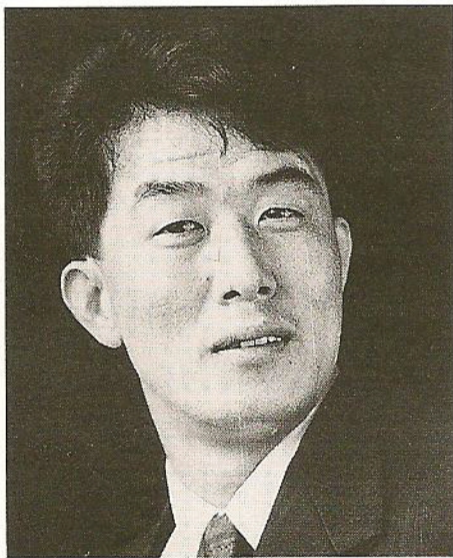
안광익 · 진돌석/김상훈



선비 · 환자/이돈희



삼적대사 · 환자/이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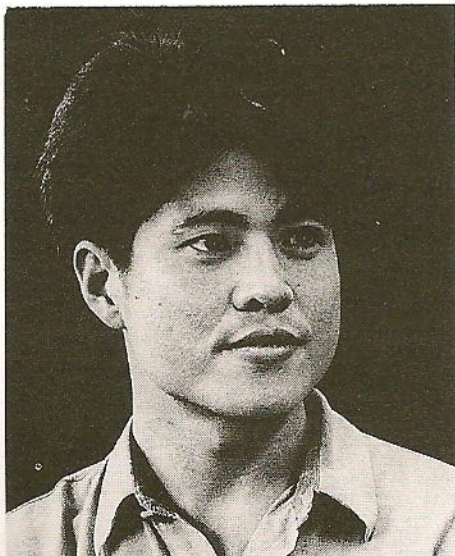
영달/최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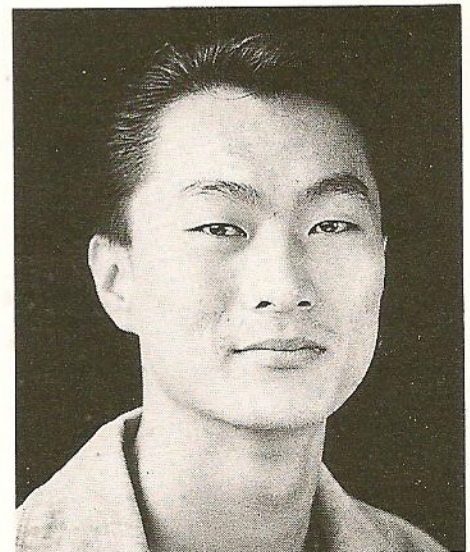
어머니/정행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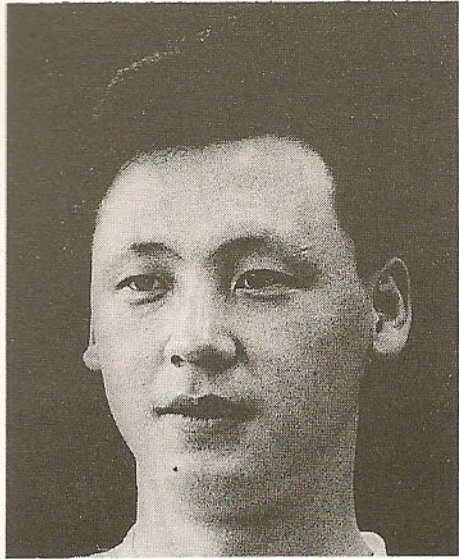
다희/오화정



도지/김승운



격쇠/손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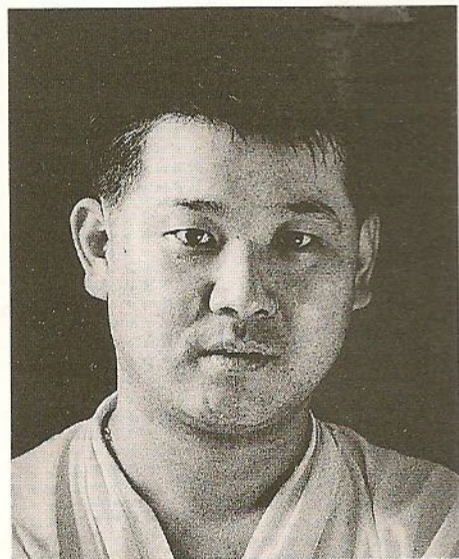
만석·머슴/장하근



노모/강정임



상화/신정연



환자/홍성현



성대감부인/김기양



오씨/이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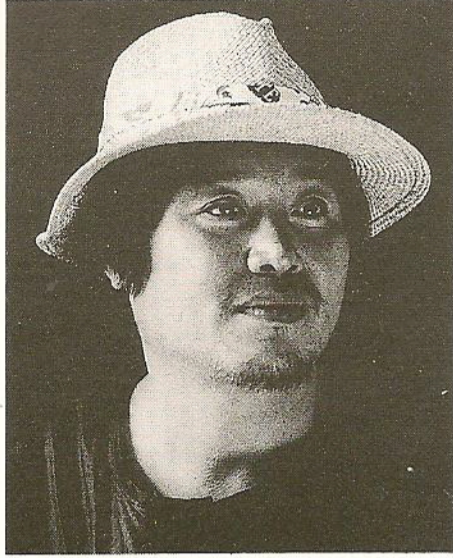


성대감딸·환자/이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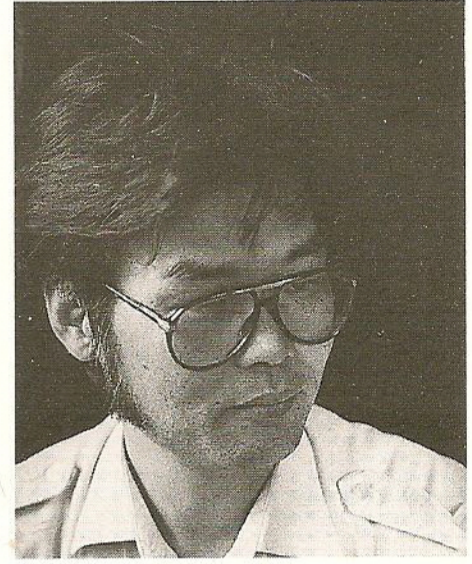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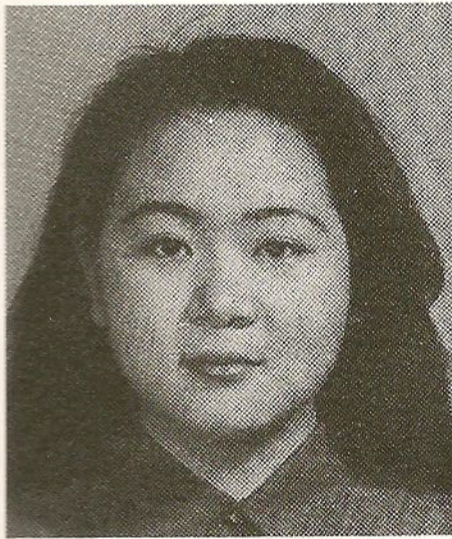
조연출/곽종필



무대감독/홍성모



음악/박철홍



진행/김미영



분장/손서운

음향/
김도영

